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새로 꾸린 제품전시장과 가공작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행생산 및 현대화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제품전시장을 몇쟁이건축물로 건설하였으며 보기에도 좋고 다루기 편리하며 성능이 대단히 높은 여러가지 제품들을 진렬해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공장의 정밀기계가공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로봇이 척척 날라다 설치해준 소재들을 가공하는 현대적인 수자조공작기계들의 작업모습이 불만 하다고 하시면서 운반으로부터 가공,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결과 로력을 절약하고 생산원가를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지난 시기에 비해 5배로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미 있던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에 참가시킨것을 비롯하여 날로 늘어나는 정밀기계들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한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였다.

3층으로 된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실의 연건축면적은 2, 570여㎡이고 원격록화실, 열람실, 종합조종실, 기술도서보관실, 망봉사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지식경제시대의



구에 맞게 잘 꾸리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만점이라고,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잘하는것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속에서 최첨단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풍가공장, 봉화은정원, 살림집도 돌아보시였다.

콩나물가공장, 두부가공장, 콩고기가공장 등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콩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콩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해줄수 있도록 지난해 콩농사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더 많은 콩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후방사업을 잘하고 문화정서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면 종업원들의 공장애와 생산열의도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아글다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대중목욕탕, 수영장, 리발실, 미용실, 탁구장, 체육치료실, 식사실 등으로 이루어진 봉화은정원의 모든 요소요소가 마음에 든다고, 환하면서도 아늑하고 정갈한 감을 줄수 있게 정말 잘 꾸렸다고,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였는데 착상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봉화은정원과 같은 편의 봉사시설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은정원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봉사와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의 사랑이 로동계급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살림집들도 손색없이 건설했다고, 질 좋고 맛있는 가구비품들도 구색이 맞게 갖추어놓았는데 종업원들이 좋아하겠다고 하시면서 광명성절을 맞으며 새집들이를 하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증산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당의 의도대로 더 많은 정밀

기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은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열의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밀기계가공품의 품종과 수량이 부단히 변하는데 맞게 생산조직과 새 제품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모든 생산공정들에 유연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현대적인 검측설비들을 리용하여 제품검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

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강동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당의 결정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집행한 전세대 로동계급처럼 오늘의 벽찬 투쟁에서도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전국서예축전 개막

광명성절경축 전국서예축전이 개막되였다.

축전장에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녀학생의 서예솜씨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나어린 재간둥이를 찾으시오》가 모셔져있다.

이번 축전에는 절세위인들의 명언들과 선군시대의 새로운 시대어들을 비롯하여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서예전문가들, 애호가들이 창작활동과 로동생활과정에서 찾아낸 명문장들, 서정이 넘치는 시구들을 다양한 붓글

씨체로 형상한 300여점의 우수한 서예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빛나라 정일봉》, 《백두광명성》, 《야전솜웃》 등의 작품들에 담겨져있다.

《강원도정진》, 《창조대전》, 《만리마기수》를 비롯한 작품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 나가는 천만군민의 필승의 기

상이 반영되어있다.

전국서예축전 개막식이 8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박춘남문화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미술부문의 모든 창작가들과 서예애호가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명작, 력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작품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백 두 산 을 우 러 르 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방일각에 백두성악마냥 우뚝 솟아 그 자태를 눈부시게 드러내며 세상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에는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 침략과 약탈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적대국들에게는 무서운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이복.

세월의 풍상에도 끄떡없이 그 위용을 도도히 하며 경이적인 사변으로 세계를 놀래우고 대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북의 현실은 그야말로 행성의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다.

동서방의 제노라하는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신비한 이복으로 달려가고 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있는 오늘 나는 그 메아리에 진폭을 더해가며 불멸의 진리를 전하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어 붓을 든다.

북을 알려면 백두산을 우러르라.

* * *

몸은 멀리 이역에 있어도 전파를 타고 끝없이 전해지는 이복소식은 들을수록 흥분과 애혹을 불러일으킨다.

2월을 맞은 이북에서는 백두산담사 열풍이 뜨겁게 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령수님께서는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백두산지구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군민을 백두산담사길에 끝없이 세워주신다.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이북땅 그 어디서나 시대의 진군가로 울려 퍼지는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이 구절에는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사는 그곳 민중의 심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세계적으로 명산도 많고 나라마다 신성시하는 산들이 적지 않지만 마음의 고향으로까지 불려진 전례는 없는줄로 안다.

고향은 삶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태어난 고향을 닮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삶의 근본을 새겨주고 인격형성의 초석을 마련해준 고향을 잊지 못해하고 항상 마음 달려가는것은 인지상정이 라고 할수 있다.

이복의 군민이 그렇듯 정경은 그리움의 대명사로 백두산을 우러르며 찾고 또 찾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일까.

백두산은 대대손손 우리 민족의 숭배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을 민족의 얼이 깃든 조종의 산으로 우러르며 백두산과 더불어 존엄을 떨치고 슬기를 빛내여 왔다.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백두산 그 이름만 들으면 마음 송엄해지고 옷깃 여머지는것이 우리 백의 민족모두의 공통된 심정이다. 그러나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우러르는 북녘 민중의 심정에는 이런 역사적 숭배의식을 초월한 숭고한 사상감정이 높여지고있다.

나는 2년전 이북에서 백두산담사길에 합류하여 백두산에도 올라보고 성스러운 전적지들을 훑아보면서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안고사는 북녘 사람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참뜻을 체험할수 있었다.

답사성원들 누구나 풀물오른 군복차림으로 붉은기를 휘날리며 철의 호름인양 보무당당히 굽이치는 장쾌한 모습은 백두산지구에서 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광경이었다. 부르는 노래가 류달리 기백과 량만에 넘치며 무슨 노래인가고 물어보면 항일선열들이 부르던 혁명가요라고 했다. 들을수록 힘과 열정이 솟아올라져도 모르게 따라부르게 되는 노래들이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타류에 부대끼며 이기겼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신비한 힘이 백두산에 있었다.

이른 새벽 초당 수십m의 칼바람이 울부짖고 천하를 뒤흔드는 장군봉에 올라 백두산해돋이를 마중하며 만세를 부를 때의 심정에 휩싸여보라.

그 장군봉에서 아득히 흘러간 천리수해를 바라보며 전설처럼 들어온 김일성항일백두산이야기를 다시 들을 때면 존엄과 영광의 최절정에서 빛나는 이복의 역사를 안아온 그 위대하고 고귀한 헌신의 세계에 마냥 가슴은 부풀어오른다.

한두해도 아닌 20성상을 하루와 같이 찰거마리처럼 달려드는 일제강도 배들과 혈전을 벌리고 눈보라와 굶주림, 병마와 싸우며 고군분투해야 했으니 그 간고성과 엄혹성을 무엇으로 다 새겨볼수 있으랴.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백두밀림은 오늘도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을 온몸을 불태우며 만만시련을 타개해나가던 항일무장투쟁의 만단사연을 길이 전하고있다.

귀기울이면 허리치는 눈길속을 비호같이 달리며 원썩을 치던 유격대의 돌격의 함성, 만주광야에 눈갈기를 날리며 달려간 빨찌산군마들의 호기찬 말발굽소리가 들려올듯싶은 백두산, 바로 이곳에서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나가는 항일투사들의 필승의 신념이 나래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백두의 정신이 창조되었다.

이복에서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백두산담사의 길에서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을 새겨오신 김일성주석님의 만고공상의 력사를 온 넋으로 체득하고있으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불굴의 기개로 싸워온 투사들의 고결한 정신에서 폭풍에도 굽힘없는 신념과 의지를 버리고있다.

항일대전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숭고한 자각,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성스러운 사명감, 인민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 심장을 뚫으며 불사신처럼 일어서군 하시였다는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줄에 높뛰는 숭고한 뜻도 다시 읽고 이런 행군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빨찌산 김대장께서 뜨겁

게 추억하신 고난의 행군의 민족사적 의의를 온 넋으로 절감한다.

우등불을 피우고 《시향가》의 노래를 부르며 투사들이 지녔던 조국애의 세계도 체험하고 항일의 옛 병기창들에서 단쇠를 두드리는 함마소리, 연길폭탄에 때죽음을 당하던 왜놈들의 비명소리도 다시 들으며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새겨안고있다.

백두산에 오르면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엄혹한 환경을 과감히 이겨내며 행성에서 유일하게 붉은기를 휘날리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온 북의 위대한 힘의 원천을 알게 된다.

봄은 봄마다, 풀은 풀마다 김일성주석님의 항일영웅사를 전하는 백두산, 이 성스러운 명봉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백두산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북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준 특기할 사변이었다.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 장군님께서는 백두산, 이 성스러운 명봉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백두산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북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준 특기할 사변이었다.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 장군님께서는 백두산, 이 성스러운 명봉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백두산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북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준 특기할 사변이었다.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 장군님께서는 백두산, 이 성스러운 명봉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백두산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북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준 특기할 사변이었다.

동행하던 일꾼들이 날씨가 좋은 때에 백두산에 올라가실것을 간청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는지,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해보기 위해서라고 하시며 백두의 눈보라를 앞장에서 헤치시였다고 한다.

만난을 뚫고나가는 투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기개와 열정, 오직 투쟁에 살도록 이끌어주는 고귀한 정신적양식이 다름아닌 백두산에 있기에 그이께서 그토록 백두산을 사랑하시며 찾고 또 찾으셨는지라.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백두의 정신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백두산처럼 높이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백두산에 오르면 세계가 그토록 놀라워하며 알고싶어하는 그 모든 의문들에 대한 정답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진리의 빛발을 받아안고 광명의 새 세계를 향해 나가는듯 한 무한한 감격과 회열에 휩싸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봉피》설을 떠들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미중유의 난국을 돌파하며 산악같이 일어나 부흥의 만년터전을 다진 그 모든 기적과 승리의 장들이 백두산과 잇닿아있다.

《대북》압살소동에 광분하는 미국을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의 뒤투수를 호되게 강타하며 《광명성》 그 이름 빛나는 주체의 위성들이 련속 우주로 솟구쳐오른 경이적인 사변들과 더불어, 핵시험의 폭음으로 온 세계를 진동케 한 쾌거와 더불어 누리에 울려

퍼진 김정일장군 만세, 만만세의 환호성을 들으며 뚫어오르는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에 가슴이 넓어지고 격정을 누를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백두산이 결심하면 사변은 이루어졌다.

온 겨레의 심장을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구어준 6.15시대도 백두에서 밝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 3월 백두산에 가셨을 때의 일을 회고하시며 나는 그 어떤 큰 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늘 백두산에 가군 한다고,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온 나라에 떠받들려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생기군 한다고 하시였다고 한다.

이렇듯 크나큰 용지를 안으시고 백두산을 찾고 또 찾으시는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발자취따라 폭풍쳐 전진하여온 주체의 선군위업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고결한 생애와 존엄과 영광으로 빛나는 북의 빛나는 승리의 년대기들을 길이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 백두산, 경애하는 김정은령수님께서는 그래서 백두산을 사랑하신다.

자신께서 백두산에 오르는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 깊이 체득하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며 백두산을 찾고 또 찾으시는 김정은령수님이시다.

TV에서 백두산에 오르신 그이의 모습을 뵈옵던 그 감격을 다시금 새겨보라.

온넋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심장이 박동친다. 세찬 칼바람이 우박같은 얼음덩이들을 사정없이 날려보내고 산정에 휘뿌려대어 한치알도 분간하기 어려운 대자연의 광경, 그러나 그이께서는 백두산의 눈보라가 얼마나 맵짱가를 맞보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다.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 백두산의 진짜매력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아, 얼마나 매혹적이고 우러르고 또 우러르고싶은 절세위인의 영상인가. 그 얼마나 감동깊은 화폭인가.

백설을 날리며 세기의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에 오른 비행사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그이께서는 사진을 찍으신다.

백두산칼바람에 외투자락 날리시며 붉은기 휘날리는 인민군담사대오에 함께 계시고 일군들과 함께 또다시 오르시어 만리마시대와 더불어 날마다 시간마다 변이 나는 북의 승리를 경축하시는 김정은령수님.

백두의 선군령장의 담력과 기상, 원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념, 비범한

령도력에 대해 알려면 그 불멸의 화폭에 어려있는 김정은령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아야 한다.

싸우는 이복, 승리하는 이복을 알려면 그 불멸의 화폭에서 뿜어나오는 위대한 진리를 체득해야 한다.

그러면 선군의 이복을 이끄는 역센 힘에 대하여, 북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그 광명한 미래에 대하여 온 넋으로 절감하게 될것이다.

이렇듯 백두산을 사랑하시며 마음의 고향으로 안고사시는 김정은령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빛날 처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과 같은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북의 존엄은 백두산처럼 높이 떨쳐지고 백두의 이빨처럼 강직한 군민이 일심단결의 성벽을 이루고있다.

백두의 천지와 같이 빛나는 문명강국이 그 눈부신 자태를 과시하고있으며 백두의 천리수해마냥 행복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다.

우리 민족이 천추만대에 귀중히 간직하여야 할 정신적자양을 끝없이 뿌려주며 백두산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민족의 성산으로 더욱 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백두산을 우러르라.

백두산이자 김정은령수님이시고 누리에 그 이름 찬연한 이복이다.

우리 민족의 넋이 백두산에 깃들어 있고 이복의 정신과 기상이 백두산에 응축되어있다.

민족의 긍지높은 어제와 오늘, 광명한 미래를 뜨겁게 새겨안으려거든 백두산을 우러르라.

이복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전변을 안아오는 불굴의 힘에 대해 알려거든,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가 내돌리는 모략으로 얼룩진 잡소리로 하여 아직도 북의 전도에 대한 편견과 의혹, 우려에 사로잡혀있거든 백두산을 찾아가 보라.

우리 민족은 그 어디에 살든 백두산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아야 존엄과 기상을 떨칠수 있다.

광풍이 아무리 사나와도 백두산을 허물수는 없다.

반북적대세력들은 《북변화》니 뭐니 하는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 뒤웅박같은 굴속에 틀어박혀 날조국을 꾸며대는 미련한 놀음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글을 마감하면서 김정은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해방의 봄빛이 차넘치던 새 조국땅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백두산에 담아 청송했던 한 열혈시인의 서사시의 한구절을 새겨보는것으로 맺음하려고 한다.

《너, 세계야 들으라!
...
내 뿌리와 같이 깊으게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
내 절정과 같이 높으게
내 천지와 같이 빛나게
세우리라—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
인민의 나라!》



올해 정초부터 평양가방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금산포켓갈가공공장, 금산포수산 사업소, 평양초등학교 등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완공되어 사람들에게 날로 윤택해질 자신들의 행복한 래일을 락관하게 해주 고있다.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그 기쁨 커가는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무쳐오는것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이의 한생을 인민을 하늘 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월처럼 태우신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고귀한 생애이다.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글자만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

이것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제품 하나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리고 기뻐하시었고 살림집시공이나 공장관리운영을 알아보실 때에도 인민들의 생활상조건과 생산환경부터 헤아리시었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이 있었다.

주체78(1989)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의 광복거리를 돌아보시었다.

랍식, 병풍식, 원통식, 날개식으로 준비하게 늘어진 고층살림집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광복거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인민들이 좋아하겠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력지구에 건설된 백화점과 상점들 그리고 학교와 탁아소, 리발소와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비록 크지 않은 일이라 해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었다.

언제인가 함경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신흥관을 찾으시

였을 때의 일이다.

이 훌륭한 식당에 왔다가 그냥 갈수 있겠는가 하시며 왔던김에 국수맛까지 보고 가자고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수저를 드시고 국수의 량이며 꾸미와 양념의 질을 가늠해보시었다.

그 지방에 흔한 농마를 국수감으로 한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메밀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농마국수만 하면 그들이 섭섭해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지금 인민생활이라면 자꾸 큰것만 생각하는데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은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색다른 음식을 맛보자고 식당에 찾아오곤 한다, 이것은 하나의 생활이다. 그런데 어쩌다 식당에 왔다가 입에 맞는 음식이 없어도,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결코 스쳐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인민들의 친차만별의 구미와 기호를 헤아려보신 장군님의 은정깊은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도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마음이 얼마나 사려깊은가를 잘 알수 있다.

바로 그린본이시기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번저가며 일하다가도 인민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피곤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하시며 생의 마지막 시기인 주체100(2011)년 12월 보름동안에만도 불철주야, 불면불휴의 강행군현지지도로 개선청년공원유회장, 하나음악정보센터,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비롯한 인민들의 복리증

진과 직결된 10여개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전기간에 찾고찾으신 단위는 연 1만 2 790여개를 헤아리며 로정은 157만 4 980여리에 달한다.

전 로씨야 원동련방구 대통령전권대표였던 블리썩스키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든 활동은 단 한가지 목표, 인민들에게 안녕과 번영을 안겨주는 데 있음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펴 력하였다.

한평생 인민사랑과 애국헌신으로 인민행렬차를 달리신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아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본사기자 주일 봉

따뜻한 해빛, 창창한 미래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미래의 주인인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데에 좌우된다 고 할수 있다.

오늘 그칠새 없는 분쟁과 레로의 거듭되는 악순환으로 아이들이 기아에 시들려 방황하고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매일씩 목숨을 잃고 있는것이 세계의 곳곳에서 빛어지는 참극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조선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새세대들이 미래의 역군으로 훌륭히 자라고있다.

지난 1월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단 힘겨워도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멧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 진다고 하시었다.

얼마전에는 새로 일떠선 평양초등학교를 돌아보시며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 소리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류력사에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여워 한 명인들과 정치가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디에 후대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강 그리 부어주고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에서 더없는 인생의 멋과 보람을 찾는 영도자가 있었는가.

돌아보면 해방전 《어린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쓴 이름난 아동문학작가였던 방정환은 민족의 후대들을 사랑해줄것을 기원하여 이렇게 썼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

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뻗어나갈것입니다. ...》

하나 아이들의 마음속 그늘을 가셔줄 따사로운 해빛, 어린이들을 따뜻이 안아주고 고운 꿈을 꽃피울 사랑의 품이 없었던 그 당시 작가의 호소는 한 인간의 리성의 목소리로밖에 될수 없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온 나라 아이들을 무리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국가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분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었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투자원칙이었고 계산방법이였다.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무력무력 자라나고있는 이 땅의 어린이들의 복된 삶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이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속에서 꽃피었다.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 헌신과 사랑은 아이들의 가슴마다에 조선의 래일을 떠받들 주인공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겨주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 우뚝 올려세워야 한다는 애국의 넋과 웅대한 포부, 아름다운 꿈과 건전한 정신이 소중한 자리잡게 해주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애지중지 키운 꽃봉오리들이 자라나 어제는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조국을 억척같이 지켜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차의 차창밖으로 바래워준 야영소로 가던 아이들이 오늘은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에서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아무리 끈질기고 악랄해도 후대들을 위한 일을 소홀히 할수 없다는것, 다른 일은 좀 미루더라도 후대들을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

서 해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정책이며 립장이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리워 전국 도처에 야영소와 병원, 육아원과 애육원, 놀이터와 같은 창조물들과 학용품생산기들이 일떠서고 온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조선의 기풍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한 외국인들도 저마다 감동을 토로하고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의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감으로 된다.》

《민기 어려운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정녕 태양의 품속에서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민족의 밝은 미래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공화국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와 더불어 끊임 없이 룡성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준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배움터로 들어서는 평양초등학교 원아들

예로부터 해와 달을 숭상해 온 우리 선조들은 달맛이를 즐겨왔는데 그중에서도 정월의 보름달풍경을 감상하기를 무척 좋아하였다.

설이 시작되어 처음으로 맞는 보름이라는 의미에서 정월대보름을 《상원》이라고도 하였는데 세나라시기 이전부터 이날의 달맛이풍습을 지켜왔다.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마음속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면서 새해의 행운과 풍작을 빌기도 하였다.

이날 떠오르는 보름달을 제 일먼저 본 사람에게는 그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서 총각인 경우 보름달같이 환한 처녀에게 장가든다고 하였고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떡돌같은 아들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젊은이들은 또 그들대로 늙은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앞자리를 내어주면서 화목하게 달맞이풍경을 즐겼다.

그러나 오늘날 달을 바라보며 아되는 이 나라 인민의 소원은 세속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조국의 밝은 달아 장군님 가시는 전선길의 이 밤을 더 밝게 비쳐주려마

더없이 소중한 추억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밝은 달에 대한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념이 인민의 념원으로 되었다는것을 토로하고있다.

하늘중천에 떠오르는 달

수필 소원

을 보며 이 나라 인민 누구나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끼는것이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고 밤하늘의 달빛을 벗삼아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북방의 세찬 눈보라길을 헤치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장군님께서 말기고 가신 인민, 장군님께서 것처럼 사랑하시던 인민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시려고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계신다.

은 나라 인민이 행복의 요람속에서 잠들 때에도 인민의 꿈과 소원을 안고 무수한 밤들을 보름달처럼 밝히는 원수님의 집무실과 야전차의 불빛!

그 불빛속에 선경의 새 거리와 새 마을, 황홀한 공장과 유원지, 그림같은 황금벌과 황금해가 펼쳐져 이 땅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고있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정월대보름달을 바라보며 불라는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있는것 아닌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천만자식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꺼질줄 모르는 원수님의 집무실의 불빛, 야전차의 불빛은 인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광명한 새날을 안아온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의 달빛에서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의 불빛을 그려보며 이 나라 인민은 절절한 소원의 노래를 부르고 부른다.

리경월

공 동 보 도 문

해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가 201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셋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가기로 하였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 각 계층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교류를 실현하고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북남선언발표기념기간으로 정하고 민족공동의 기념일들인 6월 15일, 7월 4일, 8월 15일, 10월

4일을 계기로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북측, 남측지역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올해에 반드시 성사시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는데서 주동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5.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로동자통일 축구대회, 북남농민들의 민속문화통일행사, 북과 남, 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합과 녀성단체들의 대표자회의, 북남종교인모임, 항일독립운동사적지답사를 비롯한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의 통일회합과 체육문화행사, 토론회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6. 6.15민족공동위원회는 2018년 녀자아시아컵축구경기대회,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체육문화교류가 실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7.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련대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 회의

2017년 2월 8일 중국 심양

날로 꽃피는 우리 식의 첫걸문화

일찌기 바다를 개척하여 풍부한 수산 자원을 식생활에 다양하게 리용한 우리 민족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의 하나인 젓갈을 즐겨 먹어왔다.

옛 문헌인 《삼국사기》에 신라의 29대 왕인 신문왕이 왕비를 맞으며 쌀, 술, 기름, 꿀, 장, 매주, 포와 함께 젓갈을 폐백으로 내놓았다는 기록이 있고 《증보산림경제》에는 청어젓, 대합젓, 굴젓, 새우젓, 게장 등을 담그는 방법이 서술된 것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 일찍부터 젓갈이 주요식품의 하나로 발생발전하여 널리 보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방금 지은 흰쌀밥에 새우젓이나 조개젓을 척 얹어 먹는 것을 상상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간다. 그런 까닭에 조상들은 젓갈을 《밥도적》이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젓갈은 물고기들과 그 내장에 소금과 양념감을 넣어 일정한 온도에서 삭혀 맛있는 식료품으로서 명란젓, 창난젓, 명태젓, 조개젓, 새우젓, 굴젓, 멸치젓, 건명이젓, 호두기젓 등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향신료로도 사용되는 젓갈

은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와 무우 그리고 부재료인 고추, 마늘 등의 젓산발효를 도움으로써 김치를 더욱 신선하고 맛있게 해준다.

김치가 세계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호평을 받는 것도 젓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김치에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전하여 내려오는 민요중에 흥미롭게도 젓갈을 노래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평안도와 황해도지역에서 불리웠다는 《기나리》이다.

조개는 잡아서 젓절이고 가는 님 잡아서 정들이자 ...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젓갈은 이렇듯 우리 민족의 생활사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면면히 이어져왔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 전통과 풍습을 소중히 여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젓갈품이 차례지도록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중순 훌륭히 완공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찾으시고 서해안의 물고기종류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젓갈품들을 맛있게 만들데 대한 문제, 우리 식의 젓갈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인기있는 명산품을 내놓으며 새로운 젓갈품들을 개발할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의 생활조건과 환경

보장문제 등 공장과 사업소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가공공장과 사업소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금산포지구에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건설할 것을 결심하신 때가 엇그제같은데 방대한 공사가 완공되고 이 지구가 완전히 천지개벽되었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하나 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었다.

사실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받으셔야 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공공장과 그 운영에 필요한 수산사업소건설을 맡기하시고 공해가 전혀 없고 해양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명당자리에 그 위치를 정해주시고 친히 현지에 나오시어 구체적인 방도와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을 뿐 아니라 가공공장과 사업소의 이름도 몸소 명명해주신 그이이시다.

세상에는 젓갈을 식생활에 리용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도자가 인민이 즐겨 먹어온 젓갈품의 발전과 생산장성을 중시하며 그로써 정과 마음을 바쳐온 레는 찾아볼수 없다.

오직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참다운 정치를 펴나가는 인민의 위대한 정도자를 모신 공화국에서만 이 꽃피는 인민사랑의 화폭이다.

인민봉사총국 김수민

얼마전 프랑스의 한 언론은 미국의 전 행정부가 공화국을 상대로 위협과 제재강화의 두 수단을 동시에 쓰는 전략을 추구하였지만 다 실패하고말았다고 평하였다. 그 주장에 지금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전 오바마행정부는 8년이라는 집권기간 황당한 《전략적인내》 정책을 내들고 공화국을 약화,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망상하였다. 그에 따라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제재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중대시키는 한편 공화국의 《위협》을 거들며 추종세력들을 제재압력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그 어떤 전대미문의 대조선핵위협공갈도 맥을 추지 못한데다 오히려 공화국이 자력자강을 동력으로 하여 핵강국, 우주강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길로 더욱 질풍같이 내달리게 하였다.

령도자 인구수 등에 있어서 훨씬 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갖은 위협공갈과 제재압력도 물거품으로 만들며 더 높이 비약하는 공화국의 비상한 위력에 세상사람들은 경탄과 찬사를 금치 못하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을 이처럼 무섭게 솟구치게 한 신비스러운 힘, 불가항력적힘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공화국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군

사적압살책동과 경제제재속에 서도 려명거리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려명거리건설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으로 되고있다.

지난 1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는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건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진행하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 마음들이 기적창조의 원천이 되어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완연하게 드러났다.

려명거리건설장은 말그대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정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달려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축도이라고 할수 있다.

일심단결, 이것이야말로 주체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공화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불가항력적힘이라 할수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공화국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해지고 엄혹한 난관이 겹칠수록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강성,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였기에 이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하신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정도자의 결심은 곧 현실이고 실천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며 강국의 려명을 앞당겨 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불가항력적힘- 려명을 당겨온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과 한계를 모르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열까지 완공하자고 호소하시었다.

려명거리를 세계적인 거리로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기고 지금 건설자들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낮과 밤이 따로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은 곧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거창한 애국애민의 사업임을 실지 생활을 통하여 절감하였기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사회주의 문명을 과시하는 곳

려명거리건설이 시작된지 1년도 채 안되었다. 그러나 길지 않은 그 기간에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아올랐나 웅장화려한 초고층살림집들이 우뚝우뚝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기고있다.

얼마전 독특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치는 자기의 자태를 완연하게 드러내며 완공단계에 이른 려명거리를 지나가던 나는 불수룩 황홀한 초고층살림집들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저도 모르게 절음을 멈추었다.

《저 70층 초고층살림집을 좀 봐. 꼭 위성발사준비를 끝낸 로켓발사대가 척 서있는 것 같은게 정말 멋있지.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운반로켓들 같고. 또 저 아파트들은 펼쳐놓은 책우에 펜대를 놓은 것 같고. 저런 회한한 살림집들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 듣고보니 정말 신기한데. 려명거리야말로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가는 사회주의문명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곳이라고도 말할수 있지.》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가는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곳! 흥벽을 세차게 두드리는 말이였다.

그도그렇듯이 려명거리에 일떠선 회한한 살림집들에는 문명의 최첨단수준에 올라선 우리 조국의 건축술이 집대성되어있다.

려명거리는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과 지붕 및 벽면복합화기 등 녹색건축기술들을 광범히 받아들인 에네르지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 건설된다.

여러 건물들의 기단층과 지붕에 나무들과 잔디를 심어놓아 무더운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빛을 방지하여 건물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것을 방지하고 추운 겨울에는 보온작용을 하여 내부온도가 떨어지는것을 막을수 있고 환경보호에도 좋게 설계되어있다.

또한 비물리용체계를 받아들여 비물을 건물의 지하탕크에 잡아두었다가 지붕우에 꾸린 온실이나 목지에 관수할수 있게 되어있다.

초고층살림집의 아래층부분에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나는 기단층을 형성하였으며 특색있는 편의봉사시설들이 꾸려지게 된다.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서재, 부엌 등으로 이루어진 살림집들도 흠잡을데 없는 데다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운 공기가, 추운 겨울철에는 찬공기가 방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베란다에 자연채광창을 달아주고 방들에는 겹창을 설치하여 방안온도가 항상 적당하게 유지될수 있게 하였으며 차도와 건물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여 소음을 막고 살림집구획들마다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건물들을 배치하여 거리의 거리를 방불케 한다.

이렇듯 첨단문명을 자랑하는 려명거리에서 평범한 공화국의 근로자들이 살게 된것이다. 세상에 이런 궁지, 이런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문명은 인류력사의 전과정에 사람들이 갈망해온 리상이다. 오늘 세상을 둘러보면 제나름의 발전과 문명을 뽐내는 나라들, 오랜 문명의 전통을 긍지로 여기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문명은 1%의 가진자들만의 것으로 되어있고 99%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이러한 문명과

동떨어져 살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극소수 특권층의 점유물로만 되어온 문명의 갈피마다에는 문명의 창조자인 근로대중의 피눈물이 진하게 고여있는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조국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최근 몇해동안만 해도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들이 새살림을 편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와 원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육아원과 애육

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들 그리고 학생소년궁전들과 소년단야영소들, 인민들의 웃음소리 높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인민야외빙상장, 룡라곰등어판,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과 같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후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하고 웅대한 뜻에 떠받들려 독특함을 자랑하는 려명거

리의 초고층건물들과 같은 회한한 건축물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끊임없이 일떠서고 있는 우리 조국이다.

조선이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생각할수록 가슴부풀어올라나는 머지않아 완공될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에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려갈복받은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절음을 다그쳤다.

본사기자 고영숙



초불집회와

《맛불집회》, 무엇이 다른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초불집회가 해를 이어 계속되고있다.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꺼지지 않는 초불, 박근혜역적패당이 갖은 음모를 다 꾸며도 작아지지 않고 날로 더욱 기운차게 타번지는 초불이다.

괴이한것은 이 초불집회가 벌어지는 거리와 광장의 한켠에서 언제부터인가 《맛불집회》라는것이 등장하여 세인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있는 것이다.

명칭은 초불집회에 대응한

《맛불집회》, 초불을 꺼버리기 위한 집회라고 하지만 아무튼 짝이 기우는 집회여서 불쌍사나울뿐이다.

그런데도 《맛불집회》에 참가한 극우보수떨거지들은 《불의가 정의를 이길수 없다.》고 누가 할 소리를 자기들이 하며 희명계 놀아대고있으니 과연 어느것이 정의이고 어느것이 불의인가.

그것은 두 집회의 서로 다른 풍경을 통해서도 력력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맛불집회》라는것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집회인가를 알수 있게 한다.

보수깡패들이 《맛불집회》의 참가인원수자를 엉터리없게도 수백배나 불구어 《100만명》, 《120만명》이 참가했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어도 그를 끝이민을 사람은 없다.

초불집회가 노도치는 바다의 무서운 격랑이라면 《맛불집회》는 그 격랑에 휘말려 기우뚱거리고 이리저리 뒤집어지는 작은 가랑잎이나 된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초불이 다름아닌 남녘의 민심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때 광장의 변두리에 밀려난 《맛불집회》떨거지들은 눈에 피발이 서서 《계엄령을 선포해 초불반란군을 죽여야 한다.》, 《군대가 나와야 한다.》며 폭력을 마구 선동하고 있다. 그 누구의 목을 쳐야 한다는 듣기에도 끔찍한 폭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있다. 《초불의 배후에는 중북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색깔론을 퍼뜨리는것도, 길을 막는다고 항의하는 시민을 구라하고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초불집회참가자들의 구호판을 빼앗고 폭언을 가하며 어린 녀학생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하는것도 《맛불집회》에 참가한 자들이다. 지난4일에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박사모》, 《자유총련맹》등 극우보수

단체들이 서울의 덕수궁 대한문앞과 청계광장에 기여나와서 《계엄령을 선포하라.》, 《특검은 빨갱이다.》, 《박근혜를 구원하라.》는 소리를 질러대며 소란을 피웠다.

역시 그 박근혜에 그 《박사모》이다.

《유신》독재자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빼앗고 광주를 피바다에 잠근 《5공》, 《6공》의 뿌리에서 돌아난 박근혜 《정권》이 소름끼치는 《유신》독재의 살풍경을 펼친것이나 《맛불집회》를 벌려놓은 보수떨거지들이 류철적인 쿠데타, 피의 참극을 펼치려고 발광하는것이 너무나 흡사하다.

민주의 불을 부르는 초불, 압제와 폭력을 부르는 《맛불》, 실로 선과 악의 판이한 두 풍경이라 아니할수 없다.

다 수 와 소 수



초불은 빛을 상징한다. 남녘인민들이 초불을 들고 거리와 광장들에 달려나가고있는것은 어둠의 세상을 끝장내고 자유와 민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세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안아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집회들에서는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정의의 웨침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초불민중은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국정》통단, 청와대와 재벌들사이의 검은 돈거래, 문화계인사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작성과 박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학입학부정행위 등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감행한 모든 범죄를 철저히 징벌할것을 바라고있다. 그리고 최악의 박근혜 《정권》을 청산한데 기초하여 진실로 민중을 위하는 새 정치를 마련할것이라고 웨치고있다.

반면에 《맛불집회》라는것은 나은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것이 아니라 단지 초불을 꺼버

리려고 벌이고있는것이다. 거의 0%의 지지율로까지 떨어져 다 죽은 시대의 오물, 어둠을 상징하는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죽어가는자들의 단말마적 몸부림이 《맛불집회》이다.

박근혜가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앞에 지은 죄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역죄이다. 그리고 그 진상도 이제는 특검조사와 언론의 폭로, 수많은 증거문건들에 의해 만천하에 날날이 폭로되었다. 박근혜가 남조선을 파산과 《국정》공백, 혼란으로 몰아가고 인민들에게 최대의 불행을 안겨준 특대형죄인이라는것은 남녘의 그 누구나가 말하는것이다.

그런데도 《맛불집회》라는데서 《박근혜님을 사랑해요.》, 《탄핵기각》이라는 미친 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을 보면 가관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정의를 체현하고 미래를 체현한 진짜집회가 어느것인가는 이것만 보고도 잘 알수 있다.

자 발 집 회, 관 제 집 회



평 화 집 회, 란 동 집 회



초불집회와 《맛불집회》는 그 양상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지금까지 100여일동안 10여 차례 걸쳐 남녘의 각지에서 진행된 초불집회들은 세상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평화적으로, 풍자와 해학이 넘쳐나는 문화행사형식으로 진행되어 오고있다.

이 집회에서는 그 어떤 폭력도 없다. 연 1 000여만명이

참가한 집회들에서 단 한명의 구속수감자나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은것만 봐도 초불집회가 얼마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집회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참가자들은 청와대대로의 전진을 막는 경찰차벽에 꽃모양장식을 붙이는것으로 자기들의 저항의지를 밝혀 여론의 눈길을 끌고있다.

한쪽에서 초불집회가 인기를 끌며 풍자와 해학으로 흘러갈

초불집회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으로 열리고있다. 그 누구의 사족이나 《조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녘로소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 남조선사회의 운명을 건지고 미래를 열기 위해 초불집회장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생계난에 시달리면서도 초불집회의 성사를 위해 한푼두푼 성의있는 자금을 바치고 먹을거리 장만을 위해 한시간, 한시간이 귀하면서도 추위를 무릅쓰고 초불집회에 달려나오고있다. 그 순수한 마음, 상징문을 달고 거리로 나오고 가게의 커피, 음식들을 아낌없이 집회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각계층 주민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있다.

그러나 《맛불집회》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참가하는자들은 돈에 팔린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JTBC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맛불집회》에 한번 참가하면 날씨에 따라 2만~6만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가하면 15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부정한 돈을 뿌려대며 집회를 연출하고 배후에서 조종하는것은 물론 청와대이다.

박근혜가 집권한 초시기부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서 《어버이련합》, 《국민행동》 등 수십개에 이르는 보수우익단체와 개인

들에게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어 그들을 《력사교과서국정화》와 같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단체탄압을 부추기는 시위 아닌 《시위》에로 내몰았다는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맛불집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자금을 뿌려대며 주도하는 관제집회이다.

우의 몇가지 차이점만 보더라도 남녘민심을 대변하는 진짜집회, 정의로운 집회가 어느 집회인가는 너무나 명백하게 안겨온다.

그래서 초불집회는 남녘인민들의 관심은 물론 세계적인 커다란 관심을 끌며 널리 전해지고있다. 반면에 《맛불집회》라는것은 시민들이 랭대하고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집회조직자들이 노상 우거지상을 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웨치듯이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이기는것은 정의의 초불이고 단결된 민중의 힘이다.

마지막추위가 기승을 부리고있는 오늘도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지에서는 제15차 초불집회가 진행되고 《물러설수 없다!》, 《2월 탄핵!》, 《특검연장!》 하라는 민중의 함성이 또다시 진감하게 될것이다. 그 활활 타오르는 초불의 대화와 함께 박근혜가 저승에 갈 운명의 시각도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북진위전정동경신변의 강도가 북아침수백...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민족의 절절한 소망에 대한 도전이며 시대적요구에 대한 역행이다. 그것은 이 연습이 조선반도정세의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은 오는 3월에 예정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지난해보다 더 크게 강도높게 벌리려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한〉 미군당국이 〈독수리〉 훈련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렸던 지난해에 비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편성하기로 합의해가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전례없이 떠들어대고있다. 지난해 방대한 병력과 미국의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이 대량투입되어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년례적》이라는 허울과 《방어적》이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감행된 가장 로골적인 북침핵전쟁실동연습이었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들에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기동전개되고 침략적인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서는 《평양점령》과 《북중심내륙진공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규모의 《쌍룡》연합상륙훈련, 《참수작전》, 《정밀타격훈련》, 《맥스 썬더》와 같은 북침을 가산한 훈련들이 련일 감행되었으며 그 도수도 최절정에 이르렀었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결코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봉쇄》책동의 도수가 최극단에 이른 상태에서 감행된 북침전쟁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 훈련은 곧 실전을 위한것이다. 전쟁은 결코 별다르게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훈련에 투입된 전쟁장비들과 타격수단들이 선정된 대상물에 대한 공격태세에 진입하고 그것에서 튀어난 한점의 불꽃이 곧 전쟁으로 이어지는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또다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그것도 더 크게 강도높게 감행하려는것은 이 땅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기어이 몰아오려는 극악한 도발행위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남조선호전당국이 훈련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것과 함께 여기에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제2의 조선전쟁도발때 핵무력투입의 현실성을 검토하며 공화국의 국가방위력과 보복대응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는 공화국의 변함없는 지향이고 요구이다. 그러나 공화국은 평화를 결코 구결과 동정으로 얻으려 하지 않는다. 공화국은 평화가 소중할수록 그를 해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공화국은 세기를 이어오며 제재와 압살,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극악무도한 도발자들을 임의의 순간에 마음먹은대로 타격하고 씨도 없이 짓몽개버릴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다.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아난 공화국을 함부로 건드리며 힘으로 어찌보려 덤벼드는것이야말로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망동이다. 부정의에 맞서 정의의 힘을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은 달리는취할수 없는 대응자세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도발자들의 파멸만을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외세에 붙어사는 겨우살이들

고대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태지가 되어 즐기는것보다는 사람이 되어 슬퍼하고싶다.》고 했다. 배부른 노예살이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일것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노예의 사슬을 제스스로 더 조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지》들이 있다. 미국을 하내비로 여기는 남조선의 식민지노복들이다. 얼마전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방장관을 대하는 보수당국의 구차스러운 추태를 두고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장관들이 미국방장관이 자기들을 찾아준데 대해 감지덕지하여 물문은 바가지에 깨알 달라붙듯 저저마다 들어붙어 아부를 해대는 꼴은 가관이였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란 더욱 참담했다. 《동맹강화》를 애걸하고 《대북공조》를 구걸하고 핵전력자산을 보내주십사 머리를 조아린것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장차 수십년동안을 그렇게 다리를 떨며 구걸질, 동냥질을 해왔다. 다름아닌 저들의 집권안정을 위해서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란 동족에 대한 험담, 악담이고 침략자, 강점자의 비위를 맞추며 자기들을 보살펴달라는 녀두리다. 그것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만의 권력과 향락만을 위한것뿐이다.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 수십년동안 남조선을 미국에 통째로 내맡기고 침략자, 강점자들이 더욱 오만방자하도록 미국과 함께 치욕스러운 《행정협정》이라는것까지 조작하였다. 《행정협정》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에서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사용권, 세금업무, 출입국수속》 등에서 무제한한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살인, 강도, 강탈, 강간의 갖은 악행을 저질러도, 미군시설에서 유독성물질의 온갖 배설물이 쏟아나와 산천을 더럽혀도, 총포탄을 쏘아대며 강도를 폐허로 만들어도 미군은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2002년 두녀학생살인사건만 보아도 살인자들은 《임무수행중》이라고 천연스레 뇌까리고는 미국으로 달아났다. 침략자에게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준것이 바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다. 지난 2월 9일은 《유신》독재자가 미국과 체결한 《행정협정》이 발효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그렇지 않아도 미군은 남조선에 첫발을 들이민 순간부터 갖은 악행을 저질러왔었다. 《행정협정》의 체결은 승냥이에게 감옥을 씌워준 꼴이 되었으니 그 기간 남조선인민들이 받은 고통과 불행은 그 얼마였겠는가.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지난해 4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에 《유엔군사령부》 소속 9개 나라들과도 《행정협정》과 같은 《다자간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박했다고 한다. 남조선을 통째로 미군만이 아니라 외국군대가 활개치는 다국적병영으로 만들겠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상전의 눈밖에 날가봐 가슴조이며 일개 장관을 《대통령》 모시듯 개여올리고 수치스러운 비력질만 해대고있는것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외세가 사육하는데 따라 길러지는 《태지》들, 외세에 붙어야만 형체도 생존도 유지할수 있는 겨우살이들이 분명하다. 미국이 없으면 보호자를 잃은 삼척동자가 되고마는, 저들의 권력과 향락을 위해 세기를 이어 얽혀진 겨우살이가지들 더욱 썩치는 친미정신병자들, 이런자들이 있어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끊이지는 날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2월탄핵》에 비낀 남조선민심

더더욱 폭발시켰다. 그날 초불광장에서 울려나온 민심의 목소리는 《2월에 탄핵하라》이다. 《2월탄핵》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독선적인 박근혜를 하루빨리 몰아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의지이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박근혜의 팔다리노릇을 하다가 구속된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을 비롯하여 박근혜 심복들은 줄줄이 박근혜의 엄청난 죄파가 감출수 없는 사실이라는것을 자백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말대로 양과 꺾질까듯 계속 드러나는 박근혜—최순실사건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명백해지는 박근혜의 만고죄악상이다. 몽둥이 맞은 미친개 소리 안지르고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은 아마 박근혜와 최순실과 같은 남조선의 특대형범죄자들을 두고 하는 경우이다. 지금 이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의 주범들인 박근혜와 최순

실은 추문사건이 《거짓으로 쌓아놓은 커다란 산》이니, 《민주주의특권이 아니다.》느니, 《자백을 강요》하고있다는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죄악을 덮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얼마전 박근혜는 특대형추문사건을 두고 《아니다.》, 《몰랐다.》며 탄핵소추사유를 부인하는 《의견서》라는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빛을 가릴수 없듯이 발버둥친다고 드러나는 죄악을 감추거나 가릴수 없는것이다. 회부불능의 정치폐물인 박근혜는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종말을 더욱 재촉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심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어 초불투쟁이 더 거세지고 박근혜에 대한 심판을 앞당기라는 요구는 더더욱 강렬해지고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부터 2월까지 무려 석달간 남조선인민들의 탄핵찬성여론은 70%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고있는것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2월탄핵》, 하루빨리 범죄자를 제 갈곳으로 보내야 한다는것이 현시기 남녘의 민심이 고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다.

《더이상 늦출수 없다》 지난해에 박근혜의 추악한 《국정》 통단범죄실상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앞에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다. 권력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넘기고 그의 조종을 받으며 세상에 없는 꼭두각시 《대통령》을 한 박근혜, 그는 미국의 꼭두각시이면서 또한 일개 선무당의 꼭두각시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국정》을 참혹하게 통략하고 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여 자기 몸치장에만 열성을 부린 특등범죄자 박근혜로 하여 경제는 엉망이 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남조선은 외세가 판을 치는 땅으로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남조선을 절망과 파멸의 위기로 몰아간 자기의 무능과 무지, 모든 죄악을 비단보자기로 감추고 인민들을 더욱 처참하게 짓밟았다. 남조선은 빛이 없는 암흑사회, 온기가 없는 동토대로 더욱 화하였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매일에 대한 꿈과 희망마저 빼앗겨야 했다. 박근혜에게 속았고 최순실에게 우롱당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폭발한것은 너무도 당연하였다. 외신들까지도 《어린아이》, 《마보》로 혹평하는 저런 범죄자를 권력의 자리에

그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소망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도 차고 메마른 사회가 바로 박근혜의 《유신》독재가 부활된 남조선이다. 바로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초를 허물고 희망마저 강그리 앓아간 특등범죄자 박근혜를 징벌하고 빛이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파쇼와 독재가 없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 인민들의 혈세를 등쳐먹고 배를 두드리는자들이 없는 사회, 사대와 외세의존이 없고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사회를 세우자는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은 추운 날이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고있는것이다. 민심의 열차는 이미 출발하였으며 《2월탄핵》은 그 강렬한 열망의 반영이다. 남조선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첫번째 순위에 오르고있는 글도 《2월탄핵》이다. 그만큼 《2월탄핵》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의 요구는 강렬하다.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열심히 돌고돌아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바로 우리가 만든다.》, 《여기 계신분들이 민주주의의 봄을 여는 사람들이다.》, 《박근혜가 없는 세상은 특권이 없는 세상, 여러분이 주인인 세상을 세우자.》 이것은 14번째 초불투쟁에서 나온 민심의 목소리이다. 민심에 도전하는자들의 운명이 비참하다는것은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고 진리이다. 《박근혜 (정권) 진당과 (적폐)를 끝장내고 민주, 민생, 평화, 통일의 새세상으로 전진하자.》, 《개는 짖어도 탄핵열차는 질풍같이 달린다.》 이것이 《2월탄핵》에 비낀 남조선민심의 웨침이다. 본사기자 황진욱



유총련맹》이니, 《어버이런합》이니 하는 수구꼴통들은 초불시위에 맞불시위를 벌이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등의 피비린 목청을 고야댄다. 한편 《세누리당》은 새로운 당을 세운다, 당명을 바꾼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 위기를 모면하고 또다시 부활해보려고 교묘하게 책동하고있다. 보수세력의 이러한 행동을 놓고 언젠가 한 정치인은 《죽을 썬어 개먹이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였다. 박근혜가 탄핵지연에 매달리는것은 구우보수세력들의 《편정》을 불리일으켜 잔명을 부지해보자는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세력에게 재집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주려는 데도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것은 결코 《제2의 박근혜 (정권)》인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아니다. 삶과 희망을 꽃피울수 있는 새 정치, 새 생활의 창조가

남조선에서 특대형범죄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특검조사가 지연되고있다. 원인은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착스러운 발버둥질에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황교안 이 음모양모로 방해책동을 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황교안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아 박근혜패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고 민심이 바라는 《2월란책》을 지연시키려고 오그라수를 쓰는가 하면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데 대해 《검토》니 뭐니 하면서 원새끼를 꼬고있는것이다.

황교안이 음흉하게 노는 까닭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의 과거자취,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것을 보면 답을 찾을수 있다고 본다. 황교안은 근 30년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공안검사로서 악명을 떨친 쿠무보수장개이다.

황교안이 6.15통일시대의 벽찬 나날에 평양에 와서 받은 감상을 몇글자 썼다고 하여 2001년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를 《중북》으로 몰아 형사처벌한 사건은 다 알고있을것이다. 그런가하면 2002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을 체포구금하고 민주로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진보세력탄압의 주동이라는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박근혜의 눈에 들었는지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투를 쓴자가 바로 황교안이다. 박근혜의 치마폭에 들어서서는 또 어떠했는가. 특대형범죄사건인 정보

《박근혜=황교안》

원정치개입사건과 정윤희 《국정》개입사건을 깔아뭉개고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박근혜 《정권》유지의 돌격대로 활약한 주동인물이다.

또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을 《중북세력의 집합체》로 매도하고 제가 직접 재판정에 나서 합법적인 정당을 해산하는데 앞장섰다.

그 《공로》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계바라오를수 있었다는것도 사실이다.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제 일이나 잘 할것이지 박근혜에 대한 멸사봉공으로 활약한 바지입은 속물이었다.

박근혜의 심복들로 무어진 《신7인회》의 한 성원으로서 년을 적극 비호두둔해온것으로 하여 《박근혜=황교안》이라는 딱

지가 붙을 정도였다. 총체적으로 《박근혜의 수족》, 《박근혜의 허수아비》로 불리운 황교안은 박근혜의 그림자이고 그의 특대형범죄사건의 부역자, 공범자이다. 남조선민심이 박근혜탄핵을 강력히 요구하는 지금의 마당에서도 왜 황교안이 박근혜를 극구 비호두둔해나서고있는가 하는것은 이것으로 설명이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 왜 못하게 하는가. 청와대에는 박근혜의 최악의 흔적만이 아니라 그의 팔다리노릇을 한 황교안의 추악한 자료도 있다. 특검수사, 왜 갖은 오그라수를 쓰며 방해해나서는가. 박근혜의 죄행과 함께 자기의 죄과도 드러나면 박근혜의 부역자, 공범자로서 똑같은 심판을 받을것이 분명하기때문이다.

박근혜와 황교안, 서로의 공통점이 너무도 많다. 둘다 버릴수 없는 권력야심가라는것,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것, 변할수 없는 수구꼴통이라는것이다. 황교안이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해설》에서

게 청소할리는 만무하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예측하지 못한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박근혜가 더 물러설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공포심리로 하여 박근혜

패당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 자기의 《청렴결백》을 인정시키는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헌법위반》이니, 《군사보호시설》이니, 《공무상비밀》이니 하는 등에 닿지도 않는 어설픈 구실과 이유를 내대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절해나섰다. 최순실

이와 같은 선무당이나 정유라의 승마용말을 보장하는 외국장사군, 《주사아줌마》와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검문없이 무사 통과하는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고 《공무상비밀》이 있는 곳이라니

삶은 소 우다 꾸레미 터질노릇이다. 청와대사무실들이 하나같이 《국정》을 통탄한 사건의 범죄 현장들이라는것이 이번에 박근혜의 압수수색거부로 더욱더 명백해졌다.

박근혜-최순실사태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도한 날까지는 40여일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시간이면 박근혜가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와대를 통채로 뒤집고도 남을 시간이다. 그러나 범죄의 장소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는 법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옷이 없다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범죄흔적을 아무리 지웠다고 하여도 완전무결하

1960년 4월인민봉기를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서술한것은 박근혜의 말과 다를바 없다는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간다. 다른 한가지 동족에 대한 선천적거부감, 적대심이 강하다는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박근혜에서도 《중북》소동의 주역이 늘었다는 것이면 뒤말이 필요없을것이다. 주요하게는 기울지 않는 친미

주구라는 점이다. 과거는 무시하고 불과 며칠전 황교안이 미국상전과의 전화대화라는데서 《싸드》배치문제를 비롯하여 상전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사실이 실증해준다. 한마디로 《박근혜=황교안》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초불투명에서 《박근혜 2월란책》과 함께 《황교안사퇴 및 공범세력구속》을 들고나온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박근혜의 수족》, 《박근혜의 허수아비》인 황교안, 박근혜와 다를바 없는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있으니 지금 남조선정치가 박근혜의 외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용돌이속에 방황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류현철

우리의 민족의 오랜 풍속에는 명을 마친 사람들을 땅에 묻을 때 그가 좋아한 예용품이라든가 귀중품을 함께 묻어주는것이 관례이다.

요즘 박근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와 같다. 민심의 《탄핵열차》에 실려 운명의 낭떠러지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그에게 함께 따라보내야 할것이 너무도 많다는것이

다. 그중에는 남조선인민들이 《친일, 독재옹호교과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라 부르는 《국정력사교과서》도 있다. 《국정력사교과서》, 박근혜가 몹시도 좋아한 《애용품》, 《귀중품》이다.

박근혜는 왜 《국정력사교과서》편찬에 그리도 애착을 가지고 관심해왔는가. 원래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가 아니다. 선배이자 스승이며 라침관같은 존재라 하며 공공연회 뇌까리며 애비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속생각까지 내비쳤던 박근혜이다. 권력을 쥐자마자 박근혜가 먼저 한 일도 독재를 찬미하고 옹호한것이며 그것을 계승한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역사야 달라질수 있겠는가. 박근혜에게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무소불위의 힘을 빌어 박정희-박근혜에게 불리한 역사를 외곡하고 뒤엎는것이 이상 중요

한게 없었을것이다. 그래서 2015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31명의 쿠무보수학자들을 동원하여 친

일역적들에 대한 찬양과 박정희군사파소독제를 미화분식한 《국정력사교과서》편찬놀음을 벌려 놓았다.

지금 숲이 넘어가는 마지막순간까지 박근혜가 보수당국을 내세워 어떻게 하나 성사시키려고 무진애를 쓰고있는것의 하나도 《국정력사교과서》이다.

합계 매장되어야 할 《박근혜의 효도교과서》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으로 남조선정계가 죽가마 뿜듯 하던 때 《국정력사교과서》 검토본이 나왔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각계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혔다. 항의가 고조되

용을 수정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해놓고는 교활하게 오탈자만 고치고 지난 1월 31일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그리고는 2017년부터 《국정력사교과서》를 일부 학교들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는 《국정》과 《검정》을 같이 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국정력사교과서》를 사용하고 교원들에게 지원금을 약속하는 놀음도

벌렸다. 탄핵은 되어도 《국정력사교과서》만은 남겨애비와 자기의 친일, 독재행위들을 후세에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려는 박근혜의 의지가 쓸개빠진 수하졸개들에 의해 집행되고있는셈이다.

《국정력사교과서》는 남조선인민들도 평가한것처럼 철저히 박정희의 명

예회복을 위한 《박정희교과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 친일미화, 독재옹호용교과서, 《박근혜용교과서》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면 함께 매장되어야 할 오직 박근혜만의것인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경악케 한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이 터진 이후 혼란된 정국을 리용해 몇 분에도 못나가는 저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억지주장을 펼치는 정치얼간망둥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있다.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라는자는 《북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북과 대화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것이 북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는 무책임한 유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나아가 《북은 우리와 3년동안 전쟁을 한 주적중의 주적》이라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췌쳐냈다. 지난해에도 《국민의당》의 핵심인물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탄도로켓발사시험 등에 대해 《고립을 자초하는 백해무익한 도발》이니, 《북의 병진로선은 실패할것》이라느니,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느니 하는 악담질을 하였으며 지어 당대표판자는 북의 정당한 핵무력강화조치들을 함부로 걸고드는것은 북의 미싸일발사가 《싸드》배치의 요인》이라는 나발을 공공연히 불

어했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 매달려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박근혜역적무리들이 떠들어온것과 똑같은 용납 못할 도발적망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명색이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민의당》이 반공화국대결의 나팔통을 불어대는것은 미국과 중

도보수세력들의 지지를 얻어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인기를 올려 권력을 차지해보겠다는 너절한 당리당략에 따른것이라는 것밖에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했다. 《국민의당》이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동족을 핵으로 위협공갈하고 방

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이 땅우에 항시적인 핵전쟁위기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날강도행위에 대해서는 굴뚝을 버어리마냥 한마디도 못하고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를 함부로 걸고드는것은 쓸개빠진자들의 반민족적 망둥이다.

더우기 자주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동족을 《주적》이라고 하고 제재나발까지 공공연히 불어대는것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고 배신이며 북남대결을 고취하는것으로서 결국 《국민의당》이 저들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정치인으로 자처하는자들이 진실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바란다면 무력대고 동족을

혈뜯을것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떠나 핵문제를 산생시킨 미국의 극악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부리 반대해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바라는것은 썩은 정치청산과 함께 북남관계 개선이다.

권력만을 추구하는 《국민의당》의 오물들이 세력확장을 위해 초불민심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악화를 불러들이 이 땅우에 항시적인 핵전쟁위기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날강도행위에 대해서는 굴뚝을 버어리마냥 한마디도 못하고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를 함부로 걸고드는것은 쓸개빠진자들의 반민족적 망둥이다.

더우기 자주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분량을 줄이는 너절한것을 하였다

고 격분해하면서 교육부가 《국정》과 《검정》을 다같이 쓰게 하는 교활하고 저렬한 수법으로 《박근혜-최순실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다. 당국은 박근혜를 위한 일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들이대고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류와 외곡으로 얼룩진 《국정력사교과서》가 학교들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 대응하겠다, 《박근혜교과서》는 역사에서 탄핵되어야 한다, 《국정력사교과서》가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있다.

머지않아 박근혜가 탄핵되는 날 역사를 외곡하고 민심에 역행한 《국정력사교과서》는 박근혜의 《귀물함》에 《정히》 실려 그와 함께 시대밖으로 사라져버릴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압수수색을 왜 거부하는가

남조선에서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다. 2016년 12월 21일 수사에 착수한지 44일만이다. 그러나 특검의 압수수색은 헛물만 켜고말았다. 박근혜가 자기의 노복들을 내세워 《헌법위반》이니, 《군사보호시설》이 공무상비밀》이니 뭐니 하며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저지해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철면피와 파렴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얼마전 박근혜가 보수언론과의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최순실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거짓말이다.》, 《모르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생역지를 부렸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나아가 박근혜는 《거짓으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 하며 자기의 모든 죄과를 부정하고 《청렴결백》을 주장하였다.

나라난 사실앞에 처음에는 죽을 죄로 인정하고 시간이 흐르면 부정하고 제기된 명백한 증거앞에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순실이 최근까지 한 행동이 단적실례이다.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최순실사건이 터지자

담뽕같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하고는 3차례의 《대국민담화》에서 죄행을 모조리 부정하였다. 말은 바른대로 제가 저지른 죄과가 없었다면 박근혜

패당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 자기의 《청렴결백》을 인정시키는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헌법위반》이니, 《군사보호시설》이니, 《공무상비밀》이니 하는 등에 닿지도 않는 어설픈 구실과 이유를 내대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절해나섰다. 최순실

이와 같은 선무당이나 정유라의 승마용말을 보장하는 외국장사군, 《주사아줌마》와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검문없이 무사 통과하는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고 《공무상비밀》이 있는 곳이라니

삶은 소 우다 꾸레미 터질노릇이다. 청와대사무실들이 하나같이 《국정》을 통탄한 사건의 범죄 현장들이라는것이 이번에 박근혜의 압수수색거부로 더욱더 명백해졌다.

박근혜-최순실사태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도한 날까지는 40여일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시간이면 박근혜가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와대를 통채로 뒤집고도 남을 시간이다. 그러나 범죄의 장소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는 법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옷이 없다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범죄흔적을 아무리 지웠다고 하여도 완전무결하



정월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오늘은 정월대보름날이다. 누구나 하늘에 두둥실 솟아오른 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날의 풍습은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온 민속전통이다. 아직도 눈앞에 삼삼하다. 정월대보름날 등근 달이 떠오르면 누구보다 일찍 마을 뒤동산에 올라 해를 쫓고 달집을 태우며 달을 향해 소원을 빌곤 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리고는 달을 바라보며 자식들에게 《중천에 높이 뜬 달속에 서있는 계수나무를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 추가삼간을 지어놓고 랑친부모 모셔다가 행복하게 살고지고》라는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얼마나 소박한 소원이었던가. 그 시절에는 추가삼간이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꿈이었다. 허나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는 노래에도 있듯이 달은 아무리 밝았어도 추가삼간의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인민이 오늘은 하늘을 떠이고 높이 솟아오른 여기 미래과학자거리의 불빛아래 대보름달을 바라보고있다. 은하과학자거리의 과학자들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교육자들도, 창천거리의 주민들도 누구나 부러워 할 훌륭한 집의 주

인이 되어 기쁨의 달맞이를 하고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노동자들이며 과학자, 교육자들이며 체육인들이다. 어찌 살림집뿐인가. 현 대적인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치과병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세상에 제일 좋다고 하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것이 공화국의 평범한 인민들에게 안겨지고있는것이 오늘의 꿈 같은 현실이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커진 소원과 꿈이어서 차례진 복이 아니다. 해마다 떠오르는 대보름달에 간절히 바라고 바란 소원이어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더욱 아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새기신 절세위인들을 모시지 못했다라면 이런 현실이 어떻게 마련될수 있었겠는가. 휘영청 등근 달이 미소를 짓고 이 땅을 바라본다. 그리고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비쳐주고있다.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바라던 바로 그 인민이 오늘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달속에 새겨넣는 긍지 높은 인민이 되었다. 인민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강산에 차넘치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 있다. 그것은 번영할 조국의 래일, 자자손손 누려갈 인민의 만복을 위해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 로이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안녕이다. 휘영청 떠오르는 대보름달은 올해에도 인민의 크나큰 소원과 꿈을 안고 대보름날의 밤을 환히 밝혀줄것이다.



새해에 들어와 설명절 다음에 맞게 되는 민속명절은 정월대보름이다. 《대보름》이란 민속에 음력 정월보름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예로부터 해와 달을 숭상해온 우리 선조들은 정월의 보름달이 년중의 다른 보름달보다 더 크고 밝은 빛을 뿌린다고 하면서 세나라시기 이전부터 이날에 달맞이를 즐기곤 하였다. 정월대보름날 저녁 우 리 선조들은 마을뒤산이 나 주변언덕 등 높은 곳에 올라 쟁반같은 등근달을 바라보면서 새해의 풍작과 행운을 소망하였다. 동그렇게 생긴 작은 복)를 가지고 추는 춤이었다. 이날 저녁에 지방마다 특이한 민속놀이들도 진행되었다. 황해도지방에서는 달이 떠오르기에 전에 산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들판에서 잔디밭에 불을 놓았으며 경기도지방에서는 다리밟이를 하였다. 이처럼 달맞이풍습에는 우리 겨레의 고상한 민족적감정과 정서가 어려있다. 본사기자

달맞이 풍습

사화 한그루 (5) 글리빈, 그림 김윤일

《석냥식이나 큰돈을 꾸어달라요? 그걸 언제 받겠대요... 선생네 집형편이야 내 손금보듯 환한데... 어허, 안될 말이지요, 헛 참!》

《...》

김홍도는 불구레미라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달아올랐다.

(이 자식! 내가 가난하다고 네가 감히 나를 팔세해.)

패색한 생각같이서서 꿩! 하고 침을 뱉고 획 돌아버리고싶었지만 이를 욱물고 꼭 참았다.

전서방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당하는 모욕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전서방 네가 당한 불행에 비하면야 아무것도 아니지. 또 이 주막주인을 그러다 고 할것도 없겠지. 돈이 없으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이놈의 세상인데야...

《내가 그래 꺾돈을 잘라먹을 위인같은가. 내 지금 형세가 절박해 그러는 것이니 자네가 한번 마음을 크게 쓰게.》라고 한번 더 낮추 붙는 그에게 주

인은 더더욱 쌀쌀하게 잘라냈다.

《남을 도와주다가는 내가 바지 벗는다고.》

서울깎정이다운 대답을 한마디 내뱉고 두어걸음 떼던 주인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다시 돌아서며 《안됐소만 저 매화화분을 내게 팔지 않겠소?》하고 능청스럽게 물었다. 약한 고리를 찌를줄 아는 나무랄데 없는 전형적인 장사꾼수법이었다. 김홍도는 그의 럽치 없는 소행이 패색하였으나 그의 약은 수를 탓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그가 바로 보았다. 현재 나에게는 돈 밑천이란 화분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내놓지 못한다. 아니, 하다면 전서방은 그냥 돌려보낼수 있단 말인가!...

평생을 가난에 쫓돌려온 인생이었지만 이때처럼 빈궁이 뼈아프게 고통을 준 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래 내가 저 화분을 내놓는다면...》

팔고싶어서가 아니었

다. 약삭바른 장사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듣고싶은 호기심때 문이었다. 일종의 반발감정이랄까.

《두냐!》

《뭘라? 겨우 이백푼을?》

《시세로 치면 한냥반이 될지말지하지만 내 선생의 궁한 형편을 봐서 오십푼을 더 주려는거지요.》

주인은 흥이 나서 떠벌여댔으나 김홍도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남산(목덕산)을 바라보며 생각을 굴러갔다.

(저 불쌍한 전형을 구원하자면 이 매화를 도로 팔아버리는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 어떻게 구한 꼴인데...)

매화를 내놓자니 저미는듯 가슴이 얼얼하였다. (그러니 어찌겠는가, 사람부터 구하고봐야겠으니...)

매화를 도로 판 돈이 설사 전서방의 아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량심에 꺼릴것은 없을것

같았다.

무거운 천금보다 가벼운 깨끗한 마음이 더더욱 소중한 단원 김홍도였다.

주막안으로 다시 들어온 그는 전서방에게 일렀다.

《전형,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마련이라 했거늘 너무 상심 말고 이 음식들을 마저 들면서 잠깐 기다리시우. 내 어디를 좀 갔다가 인차 돌아오겠소.》

《?...》

김홍도는 후두후두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안아들었다. 류달리 폐부에 스며드는 독특한 그 향기에 정신이 다 혼미해지면 서 가슴이 또 활랑거리기 시작했다.

문턱을 넘어서던 그는 뒤를 돌아보며 《내가 울



시 통일 율 놀이

김영일

하늘가에 두둥실 보름달이 떴네
은쟁반같은 정월대보름달에
통일의 간절한 소원을 실은
할머니와 손녀 율놀이판에 마주앉았네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경에하는 원수님 말씀하셨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율놀이판에도 통일의 념원 어러는가

손녀가 생글거리며 말을 하네
-할머니편이 먼저 하세요
심판을 맡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
-공정하게 돌아가보 하거라

할머니 아이들처럼 돌아가보를 하네
할머니와 손녀의 승벽
할머니가 가워면 손녀도 가워
주먹이면 주먹, 보면 보

율놀이가 시작되었네
할머니편의 《말》이 얇은 석동이 되어
출발선 《백두산》을 먼저 출발하였네
손자들이 응원하네

-우리 할머니 이겨라
할머니 고향 한나산까지 단숨에 달려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던 일 그만두고
그만에야 율놀이판에 둘러앉았네

손녀를 제일 귀해하는 할아버지
손녀편을 응원하네
-제 뜻을 가지구 마음을 합쳐라
그래야 길도 열려 아무렴 그렇지

할머니의 즐거운 지청구
-어이구 령감의 눈엔 손녀밖에 안보이우
심판이라는게 그게 뭐요
-편심도 있는거야

할머니의 《말》이
《함정》을 건너뛰며 결승선 향해 달리네
《한나산》을 향하여
한발 늦게 출발했지만 손녀의 마지막 《말》도
《한나산》 정점에 승리의 기발을 쫓았네

할아버지의 호뭇한 웃음
할머니-손녀까지 대를 이은 통일념원 이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리
아! 정월대보름날의 율놀이, 통일 율놀이

저마다 넓은 면적의 잡초에 불을 지르거나 혹은 상대편의 화불을 두들겨 꺼버리기도 하였다. 밤이 깊을수록 불길의 더 세차게 타버려 어둠을 밀어냈으며 해해끼리 부딪칠 때마다 세워서 보름가량 두었다가 거두었다. 어린이들이 이 난가리의 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였으며 어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도 난가리대만큼

정월대보름날의 민속놀이

다 불꽃이 탁탁 튀어나는 광경은 불만 하였다.

-난가리대세우기
정월대보름날에 일부 지방들에서는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난가리대를 세우는 풍습이 있었다.

난가리대는 작은보름날

에 세워서 보름가량 두었다가 거두었다. 어린이들이 이 난가리의 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였으며 어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도 난가리대만큼

때까지 자릴 뜨면 정말 안되오. 꼭 기다리시우.》하고 거듭거듭 당부하였다.

《이것 참... 미안하게 됐소그려. 많이 망설이다가 형세가 어쩔수 없어 다시 왔는데... 이 화분을 도로 받아두오.》

갑자르며 하는 김홍도의 말에 민씨가 벌떡 화를 내었다.

《이건 뭐 애들 소꿉장난이요 뭐요? 하두 성화

로적가리를 쌓을수 있게 풍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다.

-통일퍼가기
어떤 지방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녀인들이 첫닭이 우는것을 기다리다가 남편저 동이를 들고 나와 맑은 물을 길어가

내 이럴줄 몰랐던가. 내 놓지 않겠다는 남의 물건을 조르고 졸라서 가져갔다가는 다시 물리차고 하니 거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 서 물리나면 나 하나의 망신으로 내 일은 끝나겠지 만 저 불쌍한 전서방은 어쩐단 말인가.

육에 갇힌 아들의 모습, 그 아들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듯싶어 김홍도의 얼굴색은 말이 아니었다.

실망략담한 그의 슬픈 기색에 얼마간 동정이 갖던지 민씨가 타협의 뜻을 보였다.

《손님, 대편질 어쩔수 없는 형세란 뭐요?》

《말하기 좀 딱하오. 할거니와 주인이 그 사정을 알아서는 또 뭘 하겠소.》

《그래도 좀 들어보세다.》

《...》

김홍도는 그가 패색하여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자기가 간절히 청하는것은 귀등으로 흘리는 주제에 남의 딱한 사정을 알고싶어하는것은 남의 불행에서 재미를 느끼는 마음 빼돌려진 소행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존심이 허락